

L A S C A R T A S

JUNE, 2014 VOL. 8



Vision Statement

“예수님의 지상 명령을
이루어 드리므로
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”

선교 = 설레임 & 부담감

뉴욕하은교회 최양한 간사

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저에게,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비영리기구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저에게 어쩌면 선교라는 것이 설레임과 함께 당연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항상 알고 있기에 부담감 또한 적지않음이 사실입니다.



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다. 고국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와서 돌이었던 식구가 다섯이 되기까지 다

른 생각보다는 가정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기에 오래 전부터 품고 있던 꿈은 마음 깊숙한 구석에 감추어두고 있었던 터... 오랜만의 선교지로의 여정에 큰 목표를 세움으로 안게 될 부담감이 두려웠을 수도 있었던 듯 합니다. 다만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남미의 땅을 밟게 된다는 흥분과 설레임만은 내려놓을 길이 없어 꼭 끌어안고 갔더랬습니다.

사람 사는 땅은 똑같습니다. ‘난 이런 곳에서 살으라고 해도 못산다’는 어떤 집사님의 농담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다. 숨 쉬기도 쉽지 않은 이런 곳에 삶의 터전을 주시고 적응하게 하시고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

님의 마음. 어쩌면 없이 산다고 쉽게 불쌍한 삶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제대로 된 진짜 기쁨을 안겨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. 당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자 참으로 부족한 저희를 그 먼 곳까지 보내주셨을 테니까요. - 뒷면에 계속



물질 동참 INFORMATION



은행명: 국민은행
구좌명: 고광문
구좌번호:
298702-04-071212



Pay to the Order of: **Net Mission Community**
Address: Net Mission Community
Attn.: Mr. Young J. Kim
173 Pine Bluff Drive
Newport News, VA 23602



별, 그 설레임

단기 선교사:
운영범 집사

별이 사각사각
사과 씨는 소리로 떠서
사랑 한모금 물고
우리를 내려다 봅니다.

별 왼쪽으로는 안데스를
스쳐 내려온 바람이 불고
별 오른쪽으로 낯선 달이
맑은 얼굴을 닦고 있습니다.

별이 물고 있던 그 사랑에 대해 생각해
봅니다.

그윽한 밤에 불현듯 찾아와
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던
꽃잎처럼 부드럽고
때론 천둥처럼 뜨거웠던
설레는 사랑.

한참 그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
별은 살며시 그 사랑을
내 가슴속으로 밀어넣어 줍니다.

별빛이 상처투성이 내 가슴에
달아 소금물같은 눈물로
흐르다가,
그리고 아프다가,
별은 옛적 누이가
저녁 마당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던
부드러움으로 날 용서합니다.

다시 태어난 봄꽃이 그렇듯
우리의 상처가 이제는 아프지 않고,
이밤 다시 떠오른 별빛이 그렇듯
우리의 멀고 가까운 꿈들이
새벽하늘에 가득합니다

우리는 압니다.
별이 물고 있던 그 사랑이
이밤을 진정 푸르게 빛나게 하는것입
을.

우리의 가슴속에서
안데스의 들꽃처럼 환하게
피어있음을.

“NGO사역: 월드 휴먼 브리지”



요리 강좌



네일 아트



소싸움이 열리는 카니발에 동네사람
들이 다 몰려가 노인과 어린아이들
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40여명이
넘는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이들 동
안 진행한 VBS, 소는 잡지 못했지
만 읍내의 고기를 싹쓸이 해서 함께
즐겁게 먹고 마시며 불꽃놀이까지
즐긴 마을잔치, 생전 처음 해보는 옥
수수 농사일, 그리고 색다른 경험으
로 교육생들에게 더 넓은
사고의 기회를 제공해 준
한국요리강좌와 네일강좌
까지... 작지만 알차고 큰
의미를 가진 프로그램들이
이번 단기선교를 풍성하게
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. 티
격태격 의견충돌도 있고 실
망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
호와이레 하나님의 인도하
심과 은혜를 느끼며 조금씩
변화하고 성숙하는 단기선
교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
서 보시며 흐뭇해 하셨을
스페셜 보너스였을 테고
요.

그리스도가 없는 삶 가운데
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
복음의 기쁨을 그리고 구원
의 기쁨을 자리잡게 하시기
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
사님 가정과 뒤에서 사역을
지원하시는 평신도 사역자

분들의 삶을 보면서 볼리비아의 미
래가 어둡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
습니다. 아무것도 없었던 토로토로
그 땅이 이렇게 많이 변해있을 줄 몰
랐다는 2년 전 단기선교에 참가했던
집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며, 내년 그
리고 내후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
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게 될 그 땅을
위해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.

기도 제목: Prayer Request

1. **토로 토로 교회 착공식:** 7월 6일 주일에 선교 훈련원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영혼 구원의 불타는 심정으로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.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소망으로 이겨내고, 사랑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원합니다.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
2. **“사라의 땅 농장” 사역:** 이제 농지 준비의 마지막 부분을 진행중입니다. 우물, 전기 작업, 농지 경작 준비 작업이 7월 중 마무리 예정이고 8월 11일 드디어 파종 예정입니다.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

감사 제목:

뉴욕 하은 교회와 한국 월드 휴먼 브리지 방문에 감사 드립니다.